율하신도시 지역 포교 책임질 수행 도량 '우뚝'

5월 21일 '율하선원 500불 점안법회' 봉행
안국선원, 김해포교당 율하선원 불사 마무리
"간화선 · 포교 다짐, 김해 수행도량으로"
500불 무형문화재 입사장 이경자 작품
4층 2개 동 연면적 1919.3㎡ 규모 조성
선원 정식 개원식은 올 하반기에 열 예정


김해 율하선원이 5월 21일 경내 법당에서 500불 입사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다양한 정보와 실참으로 간화선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부산 안국선원이 경남 김해시 율하신도시에 김해포교당 율하선원 불사를 마무리하고 김해지역 포교에 나선다.

율하선원(주지 석산)은 5월 21일 경내 법당에서 '율하선원 500불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새로운 지역포교를 시작했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증명으로 봉행된 이날 법회는 점안 의식 후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주지 석산 스님의 인사말로 마무리됐다.

이날 점안을 마친 율하선원 500불은 이경자 무형문화재 19호 입사장의 작품이다. 금속 바탕에 무수한 두드림과 금선, 은선으로 문양을 새겨 넣은 전통공예 기법 '입사(入絲)'로 조성됐으며, 부처님 몸에는 꽃, 해, 달, 바람 등 삼라만상의 문양을 새겼다. 불단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108불과 상단 벽에는 392불이 명상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불단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감을 상징하며 지구의 재앙과 일체 중생의 고통을 바라보는 광대무량 자비심을 상징한다.

이경자 작가의 작품을 불단에 모신 것은 서울 정각사 천불과 미래탑 이후 두 번째이며, 삼성미술관 리움이 '108 니르바나'를 소장하고 있다. 이경자 입사장의 작품은 그동안 국립민속박물관, 예술의 전당, 호주 파워하우스 뮤지엄 등 특별한 전시에서 관람을 통해 볼 수 있었으나 율하선원에 봉안돼 새로운 불상 시도로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점안 의식을 통해 율하선원은 김해지역 명소로 발돋움할 것과 간화선 수행 및 포교 다짐으로 김해 지역 수행도량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회주 수불 스님은 "무엇보다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시도로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전통과 구태는 다르며 우리가 이어가야 할 것은 전통이다. 구태는 뒤떨어진 예전 모습을 따라가는 것으로 발전을 막는 요소가 된다"며 "시대에 맞는 불교의 모습을 고민했고 과감한 시도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행이 곧 포교이다'라는 신념으로 지냈고 그 결실을 또 맺은 것 같다. 간화선 수행과 포교의 거점으로 김해 가야불교에서 더욱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석산 스님은 "은사이신 수불 큰스님께서는 저에게 '죽을 때 까지 포교하라'는 한마디 당부를 하셨다"며 "30년 동안 스님의 삶을 지켜보며 회주 수불 스님의 삶이 새겨져 나침반이 되고 지침서가 되는 것 같다. 죽을 때까지 포교하는 것으로 앞으로 보은의 삶을 살고자 한다"고 말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보운 스님은 "김해 율하선원은 간화선 수행으로 포교하며 수행을 이끌어 주신 수불 스님의 노력이 만든 결실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간화선 수행의 가치를 널리 드높이는 포교 거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원허 스님은 "회주 수불 스님은 간화선의 대중화에 앞장서시고 세계불교의 디딤돌 역할을 하셨다"며 "율하선원은 가야불교의 중심지였던 김해에서 새로운 포교의 장을 열어 갈 것으로 생각한다. 주지 석산 스님은 율하선원을 통해 은사이신 수불 스님의 수행방법을 정착시키고 포교의 도약처로 삼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율하선원은 김해시 장유동에 위치한다. 장유동은 인도 아유타국 태자이자 승려인 장유화상이 처음 절을 세운 곳으로 알려져 의미가 있으며, 지역민 평균 연령이 32.3세로 젊은 신도시 지역이다. 김해 장유의 불교적 의미를 강조하고 젊은 불자 양성을 위한 새로운 포교를 위해 세워졌다. 율하선원은 지하 주차장을 포함해 총 4층 규모이며, 대지면적 1356㎡, 연면적 1919.3㎡ 규모이다. 현대식 건물 2동이며 건물 가운데를 연결하는 통로가 있어 이동이 편리하고 요사채, 법당, 공양간, 다도실 등 주요 시설이 있다. 신도시 인근 산책로에 위치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하며 배산임수형이다. 앞으로 율하선원은 정기적인 간화선 법회와 집중수행을 진행할 계획이며 어린이법회 등을 통해 대중과 만날 계획이다. 정식 개원은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다.

심청이문수노인복지센터 개원

문수복지재단, 확장 이전 개원식



사회복지법인 문수복지재단(대표이사 지원)이 5월 25일 심청이문수노인복지센터 확장 이전 개원식을 봉행했다.

심청이문수노인복지센터는 2001년 3월 용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한 어르신주간보호서비스로 시작했다. 하지만 공간이 협소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문수복지재단은 2018년 법인을 설립하고, 80여 평의 공간에 '문수노인통합지원센터'를 새롭게 개관했지만 문수노인통합지원센터도 협소해 어르신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워 한 번 더 확장 이전을 하게 됐다.

이번에 개관한 심청이문수노인복지센터는 792㎡(240평) 규모에 4층이며,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 공간과 야외활동을 위한 옥상 정원 및 텃밭을 조성했다.

대표이사 지원 스님은 "지난 3년 간 어르신들을 위해 문수노인복지관을 운영해왔지만 수요에 비해 장소가 협소에 불편함이 많았다"며 "더 넓은 곳에서 어르신들을 쾌적하게 모시고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성 센터장은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온 많은 분들, 특히 어르신들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어르신들의 아픔과 가족들의 손발이 되어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시설 이용자 가족 박수정 씨는 인사말을 통해 "어머니는 현재 88세이시고 늘 건강하셨지만 3년 전 대상포진으로 건강이 갑자기 악화돼 치매라는 판정을 받았다"며 "노인복지센터를 다니신 후 어머니 표정이 밝아지시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웃음을 되찾으셨다. 덕분에 혼란스러웠던 저와 저의 가정에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인사했다.

한편, 심청이문수노인복지센터는 이전 개원 후 서비스를 확대해 목욕 세탁서비스와 방문의료서비스, 인지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가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24시간 단기보호 서비스 및 야간보호 서비스 등도 실시한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제5회 부산불교대상 최금식 선보공업 회장

5월 20일 부산연등회서 시상식

부산지역 불교 발전에 헌신하는 불자에게 시상하는 '제5회 부산불교대상'의 대상에 최금식 선보공업 회장이 선정됐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보운) ·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가 공동주최하고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가 주관한 '제5회 부산불교대상' 시상식이 5월 20일 부산시민공원 특설무대에서 봉행된 '불기 2567년 부산 연등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은 최금식 선보공업 회장이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서보석(반도산전 대표), 신기열(목원개발 대표), 삼광사 차문화회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이명숙(대한불교 진각종 유가합창단 단장), 최은숙(해동중학교 교사), 고담나누미 봉사회가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 최금식 회장은 남다른 불심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범적으로 실천함과 동시에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부회장, 길상사 신도회장(10년 이상)을 맡아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부산연등축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팔관회, 부산불교신년하례회를 비롯한 각종 불교 관련



행사를 위해 후원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됐다.

최 회장은 선재장학재단을 설립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 빈곤국가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비영리 공익법인 선보등대를 설립하고 티베트 등 제 3세계 빈곤국가의 아동을 위한 학교건설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 정비, 연탄배달, 저소득 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의료기관 물품 기증 및 무연고 환자 생필품 기증 등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 부산일보CEO아카데미 총동문회 회장,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맡고 있으며 ㈜선공공업, ㈜선보유니텍, ㈜선보하이텍, ㈜선보피스, ㈜선보엔젤파트너스,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 등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진주 충국성불사, 신중탱화 점안법회 봉행

전투기, 장병 등 그린 새로운 탱화
초대 군법사 심산 스님 증명



공군교육사령부 충국성불사(주지 도혜)가 5월 24일 경내 법당에서 신중탱화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충국성불사가 새롭게 조성한 신중탱화는 공군교육사의 정신을 그린 것으로, 전투기와 공군장병의 전투복, 정복을 입은 장병의 모습,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가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충국성불사 초대 군법사를 지낸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의 증명으로 봉행된 점안법회는 개회사, 명종, 삼귀의, 반야심경, 발원문 낭독, 내빈소개, 환영사, 축사, 탱화공개, 청법가, 입정, 법문, 공지사항,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는 충국 성불사 주지 도혜 스님,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미륵암 담산 스님, 前 군종실장 각원 스님, 군종실장 진홍 법사, 석보사 도운 스님, 반야선원 담운 스님, 유재문 교육사령부 소장, 윤진호 대령, 금경연 대령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심산 스님은 법어에서 "정법으로 이끄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중들이다. 오늘 불사를 통해 이곳을 찾는 불자들과 장병들이 성장하고 부처님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군 사령부를 제대한 후 인연을 이어 포교를 해왔다. 오늘 이곳을 방문하니 더욱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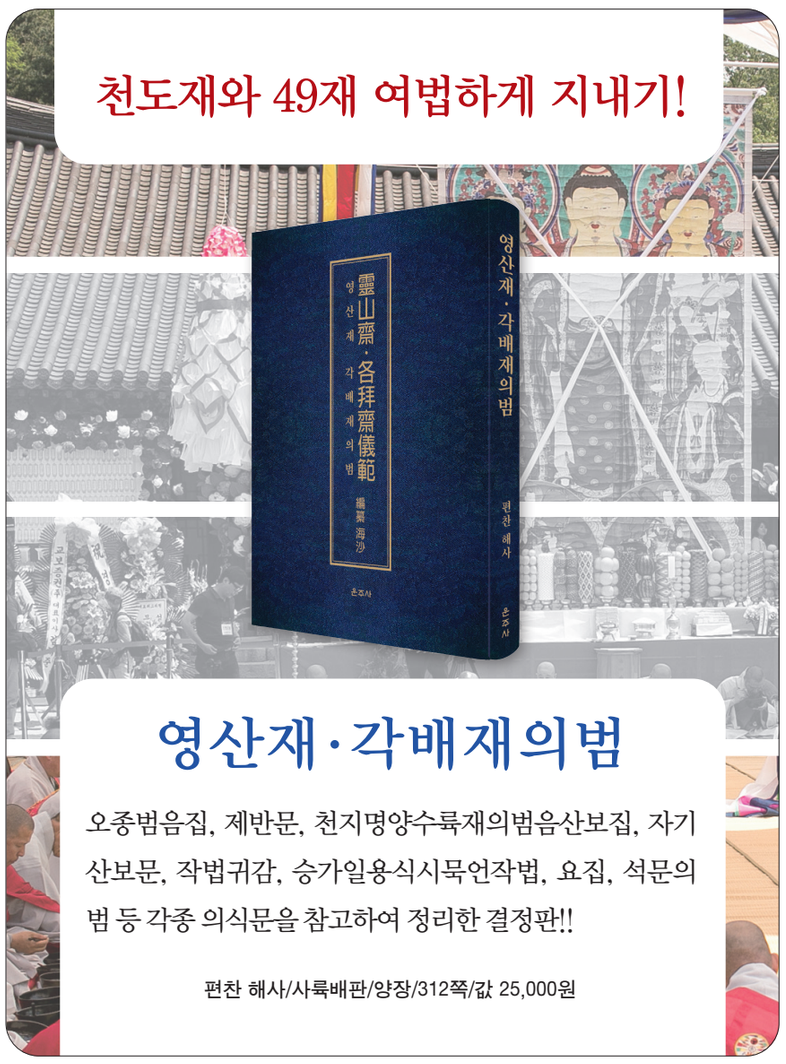
유재문 장군은 환영사에서 "신중단이 없는 것이 많이 아쉬웠는데, 심산 스님과 인연이 되어 점안법회를 봉행하게 되었다"며 "사령부의 특색에 맞게 장교와 부사관, 병사들의 모습이 담겨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진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前 군종실장 각원 스님은 축사에서 "여러 부대에서 근무를 했지만 여기 공군사령부에서 보낸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선배이신 심산 스님을 뵈니 자랑스럽고 오늘 신중탱화를 모신 후 병사들의 안식처로 더욱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